

## 불꽃으로부터의 탄생

먼 옛날, 약 100 만 년 전~1 만 년 전에 반복된 화산 활동이 도카치 시카오이 지질공원의 경관을 형성했습니다. 100 만 년의 시간을 지나며 과거에는 바다였던 곳에 육지가 생겨나고 새로운 산들이 탄생했으며, 강이 막혀 시카리베쓰호가 탄생했습니다.

### 도카치 평야의 형성

도카치 평야의 형성은 약 1,300 만 년 전에 두 개의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. 이때의 충돌에 의해 히다카 산맥이 탄생했고, 현재의 도카치 지역에 구조분지가 생겨났습니다. 과거 분지는 현재보다 훨씬 더 내륙으로 뻗어있었으며, 태평양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. 수백만 년에 걸쳐 이 분지에는 토사가 퇴적되었습니다. 약 100 만 년 전, 시카오이 북부에 있던 거대 화산의 분화를 시작으로 화산 분화 및 도카치강과 도카치강 지류의 하천 작용을 포함한 다양한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 토사가 쌓였고, **그렇게** 과거에는 바다였던 곳에 서서히 습지대가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오늘날의 도카치 평야가 되었습니다.

### 새로운 산들의 등장

시카리베쓰호 주변 산들은 시카리베쓰 화산군의 일부이며, 구기(旧期) 화산군과 신기(新期) 화산군이라는 각기 다른 시대에 생긴 화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구기(旧期) 화산군의 활동은 현생 인류가 진화한 무렵인 약 30 만 년 전에 시작되었으며, 그 후 20 만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. 가장 오래된 것은 기타페토우토루산(1,400m)과 미나미페토우토루산(1,348m)입니다. 모두 성층화산이며, 점성이 낮고 흐름이 빠른 용암의 반복적인 분출로 산이 만들어졌습니다. 이 산들보다 젊은 산들은 6 만 년 전부터 10 만 년 전에 탄생했습니다. 이 산들은 종상화산이며, 점성이 있는 용암이 흘러내리지 않고 분출구 주위에 쌓이면서 산이 형성되었습니다. 호수 주변의 많은 종상화산에는 비슷한 크기의 바위가 **많이 쌓여있는** 사면이 있습니다. 이는 ‘암괴사면’이라 불리는데 동결과 용해에 의한 풍화와 마찰에 의한 파쇄가 결합되어 생긴 것입니다. 4 개의 종상화산 중 가장 높은 것은 니시누푸카우시누푸리산(1,254m)과 히가시누푸카우시누푸리산(1,252m)이며, 그 밖에 하쿠운산(1,187m)과 덴보산(1,173m)이 있습니다.

### 호수의 탄생

시카리베쓰의 종상화산은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. 종상화산의 형성에 의해 강의 흐름이 막히게 되었습니다. 강이 서서히 막힌 결과, ‘언색호’인 시카리베쓰호가 만들어졌습니다. 해발고도 804m 의 산 위에 있는 시카리베쓰호는 홋카이도에서 가장 고지대에 있어 천공의 호수라고 불리며, 투명도는 19.5m 로 일본 최고의 수준을 자랑합니다. 면적은 3.4km<sup>2</sup>에 이르며, 호수 둘레는 13.8km 입니다. 하지만 원래 호수는 더 커서 북쪽과 서쪽으로 더욱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. 강은 일시적으로 막혀 있었으나 물은 머지않아 다른 출구로 흘러나왔습니다. 바로 호수의 남서부입니다. 시카리베쓰 지역의 지형은 이 지질공원의 경관을 만든 강력한 힘이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.